

디스토피아적 미래 생태계: 페르난다 갈바오의 공상과학적 세계, 아시아 최초 개인전 Oyster Dream : 파운드리 서울

8 ÉPOQUE hannam | ㉸ 승인 2023.03.13 15:34

2023. 3. 17 — 5. 13

FERNANDA GALVÃO 페르난다 갈바오 아시아 최초 개인전 Oyster Dream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3 파운드리 서울

화 — 토 (오전11시 — 저녁7시) 월, 일 휴관

네이버 파운드리 서울 예매 후 무료관람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파운드리 서울은 브라질 상파울루 기반의 작가 페르난다 갈바오 (Fernanda Galvão)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 Oyster Dream 을 선보인다.

페르난다 갈바오(FERNANDA GALVÃO)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생물학, 조직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연과 신체를 이루는 세포와 조직을 관찰하고 탐구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전시에서 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시적 세계를 공상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확장시켜 디스토피아적 미래 생태계 풍경으로 펼쳐낸다.





Fernanda Galvão, Alga, 2022 © Julia Thompson Courtesy of the artist, Casa Triângulo, São Paulo, and FOUNDRY SEOUL, Seoul

페르난다 갈바오(FERNANDA GALVÃO)는 1994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상파울루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최초로 예술학부 과정을 시작한 곳으로 알려진 아르만도 알바레스 펜치아두 대학(Fundação Armando Alvares Penteado, FAAP)에서 시각예술을 전공했다.

페르난다 갈바오는 브라질에서 매년 열리는 유서깊은 예술 살롱인 히베이랑프레투 국립 현대 예술 살롱(Salão de Arte de Ribeirão Preto Nacional Contemporâneo)에서 입상하며 히베이랑프레투 미술관(Museu de Arte de Ribeirão Preto)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브라질库里티바 시의 오스카르 니에메예르 미술관(Museu Oscar Niemeyer) 등지에서 활발히 소개되었으며, 상파울루의 까사 트리앙글루(Casa Triângulo), 런던의 치브리코 셰이크(Tsivrikos Shake Gallery) 갤러리의 주목을 받으며 브라질 미술계의 떠오르는 신진 작가로 각광받고 있다.

파운드리 서울은 2021년 6월 개관한 컨템퍼러리 아트 갤러리 입니다. 총 면적 984.25 제곱미터, 전시전용 면적 398 제곱미터 규모로 주요 갤러리, 뮤지엄, 대안공간 등이 위치한 문화의 중심지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서울은 동시대 미술계가 주목하는 이머징 아티스트를 완성도 높은 전시를 통해 소개합니다. 더불어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위한 열린 장을 마련합니다. 베를린 기반의 아티스트 헤닝 스트라스부르거(Henning Strassburger)를 시작으로, 뉴욕 기반 미국 작가 이건 프란츠(Egan Frantz), 런던 기반 아티스트 율리아 아이오실존(Yulia Iosilzon), 덴마크 코펜하겐 기반의 이란 출신 작가 파샤드 파르잔키아(Farshad Farzankia), 스위스 취리히와 라트비아 리가 기반의 작가 토비아스 카스파(Tobias Kaspar)의 한국 및 아시아 최초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ÉPOQUE hannam hannamdongepoque@gmail.com

저작권자 © 에포크한남 (époque hanna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